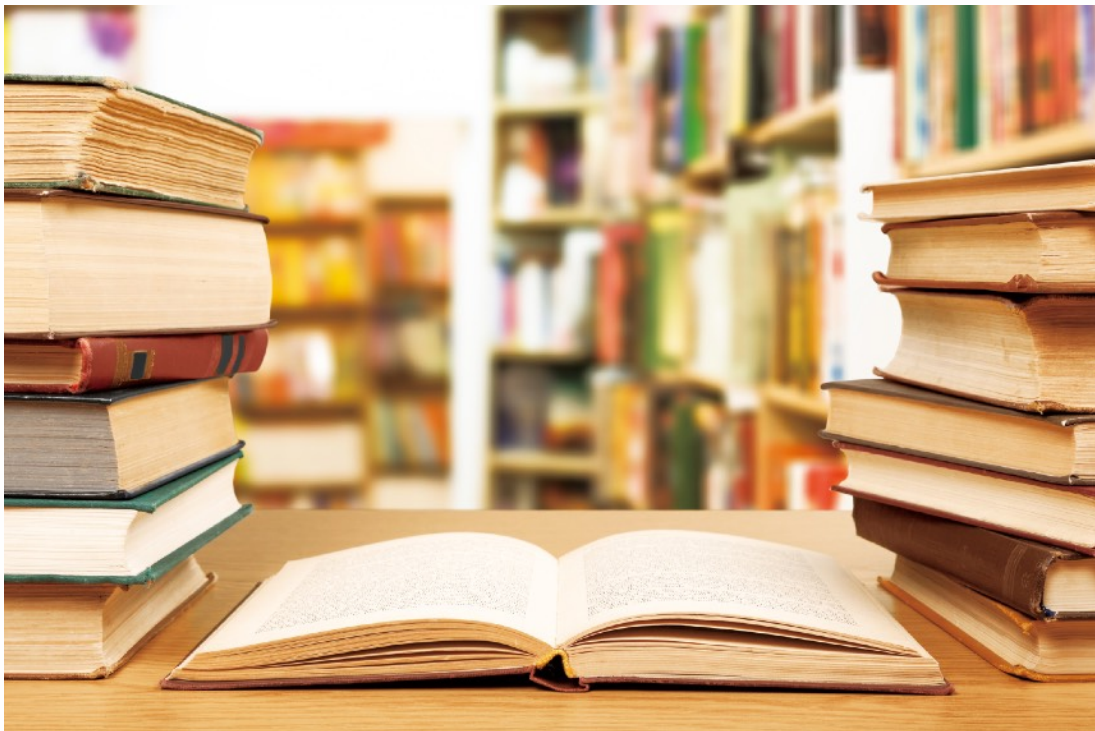


## 주요 내용

1. [한국교회의 성 인식 실태(개신교인/목회자)]  
교회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목회자보다는 일반교인에게서 훨씬 많아!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세계 기독교 박해 실태
  - 2) 2021년 청년 취업 인식 조사
3. [넘버즈 칼럼] 천주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유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교회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목회자보다는 일반교인에게서 훨씬 많아!

“순진한 아이들 꼬셔서 인생 망치게 하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교회목사라는 탈을 쓰고 목사도 아닌 인간이 온갖 착취를 다하고”

“목사의 꾸준한 (성)범죄 이 정도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스러워요”

위의 두 따온 글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의뢰해서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교회 4대 이슈’에서 목회자 성범죄 이슈를 분석하면서 인용한 온라인 댓글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따온 글이 지적했듯이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는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빅데이터로 본 한국교회 4대 이슈’는 2019년부터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연례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빠지지 않는 고정 이슈가 목회자 성범죄 문제이다. 또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였다는 뉴스를 종종 듣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 데이터는 목회자보다는 일반성도에게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회내 성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넘버즈 130호에서는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21년 11월에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 가운데 중요 사항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성의식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자기성찰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30호의 내용은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서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21년 11월 18일에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개요

구분	개신교인 조사	목회자 조사
• 조사 대상	만 19세 ~ 65세 교회 출석 개신교인	담임목사, 부목사, 설교/협력 목사
• 조사 지역	전 국	전 국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 표본 규모	총 800명 (유효 표본)	총 212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개신교인의 성/연령/지역 따른 비례할당	목회자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
•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 3.5%	-
• 조사 기간	2021년 8월 30일 ~ 9월 9일	2021년 9월 3일 ~ 9월 5일
• 조사 의뢰 기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조사 수행 기관	(주) 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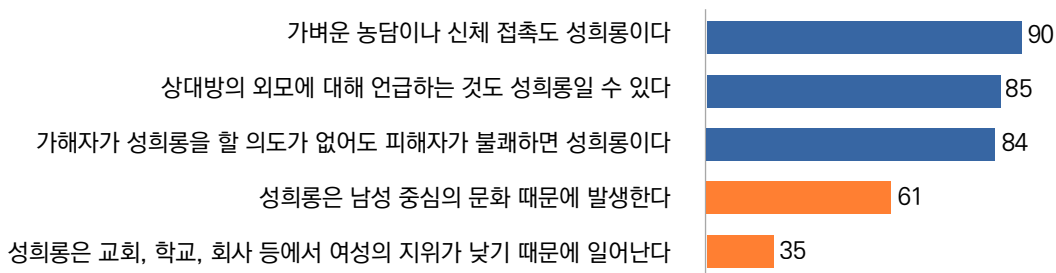
본 분석에 사용된 보고서 전문(Full Report)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홈페이지(<http://yourvoice.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01

## 개신교인, 성희롱 규정에 대한 이해도 높으나,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은 부족!

- ▶ 개신교인들은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90%)',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언급'(85%)도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희롱을 규정할 때는 피해자 시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다'라는 응답이 84%인 것을 보면 성희롱에 대한 이해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 ▶ '성희롱은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에 61%만 동의했고,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에 35%만 동의했다. 성희롱이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특히 조직 위계 구조가 심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이에 비춰 보면 개신교인들은 아직 성폭력의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그렇다(매우+약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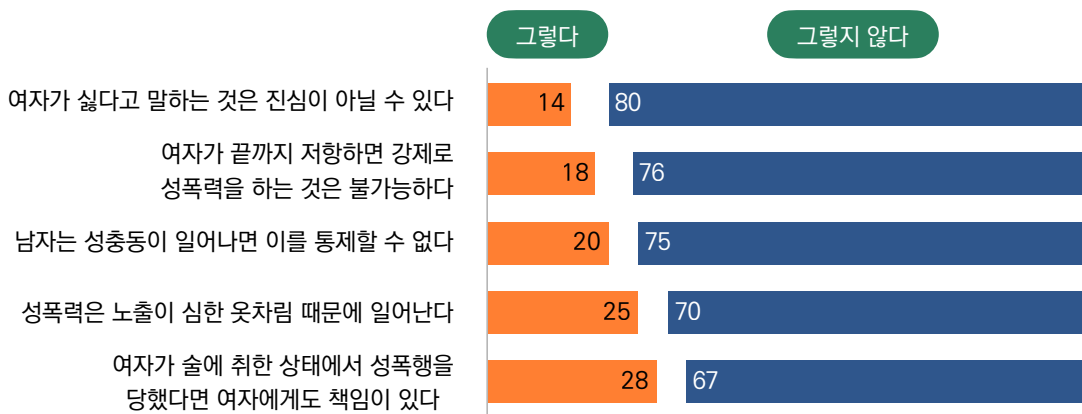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 개신교인 4명 중 1명 이상, 여성 성폭력 유발책임이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있다고 생각!

- ▶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28%),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25%)는 인식을 보면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돌리려는 인식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
- ▶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20%)와 같이 극히 남성 중심의 사고가 어느정도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단위 :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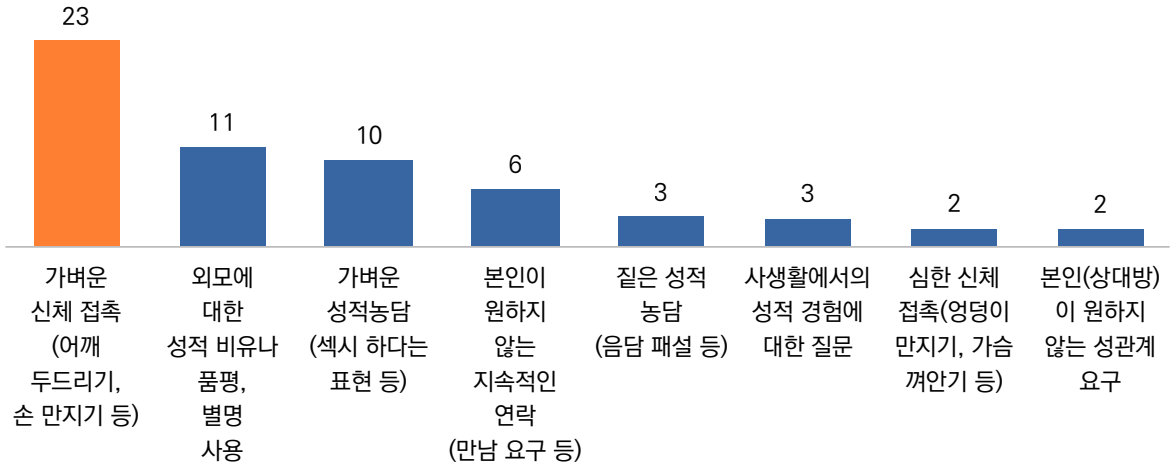
# 02

## 교회에서도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벌어져!

- ▶ 교회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당하거나 주변에서 보고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대체로 10%가 안되지만 '가벼운 접촉'은 23%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심각한 성희롱/성폭력 상황인 '심한 접촉', '성관계 요구'는 각각 2%로 수치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과 은밀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2%라고 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림] 출석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개신교인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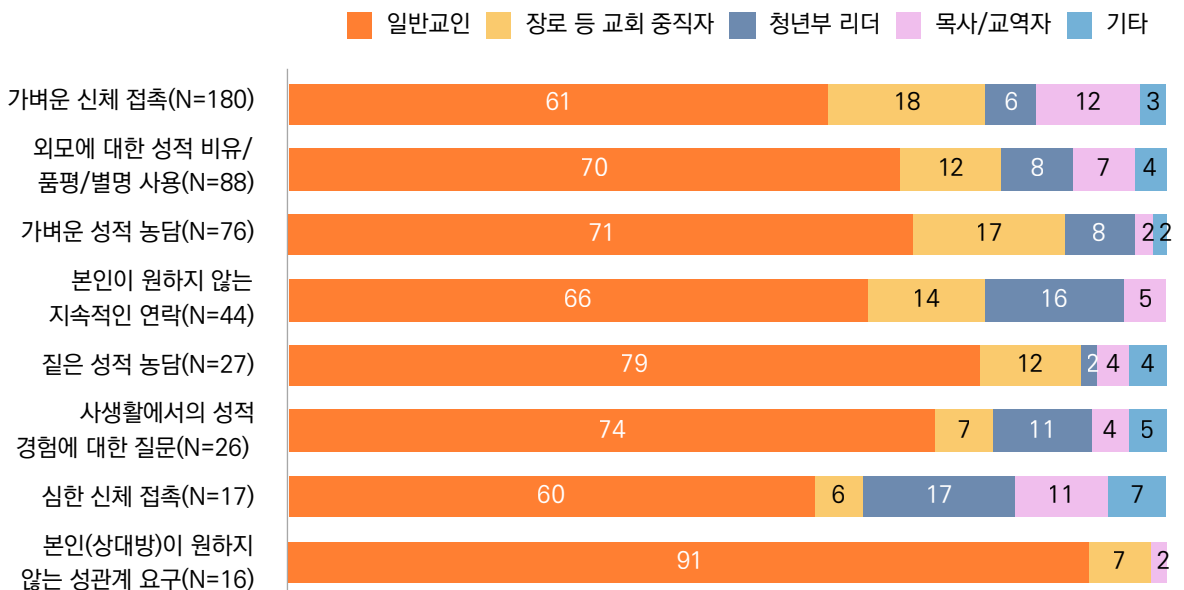
\*성폭력 개념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 교회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목회자 보다는 일반교인에게서 훨씬 많아!

- ▶ 언론에서 목회자 성폭력만 보도되어서 우리 인식 속에는 목회자 성범죄만 각인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 교인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 ▶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일부에게만 비난을 할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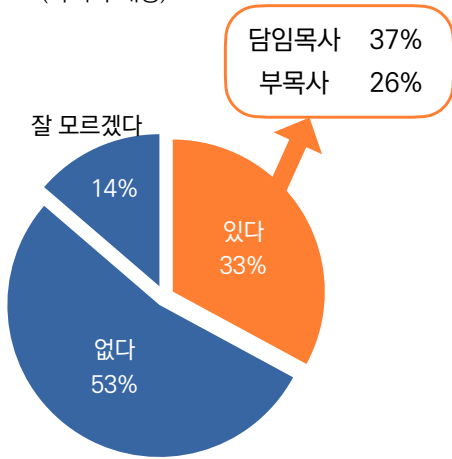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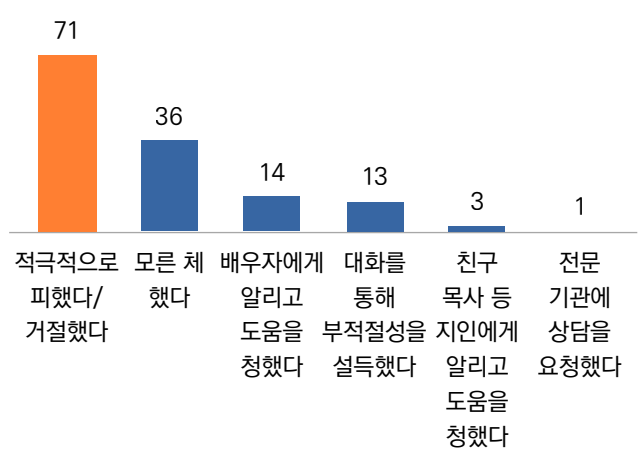
## 목회자 3명 중 1명,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적 있다!

- ▶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목회자가 3명 가운데 1명(33%)꼴로 높은 편이었는데 부목사보다는 담임목사가 더 높은 경험율을 보였다.
- ▶ 이런 경우, 대처법은 '적극적으로 피했다/거절했다'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 (목회자 대상)



[그림]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왔을 때 대처 (목회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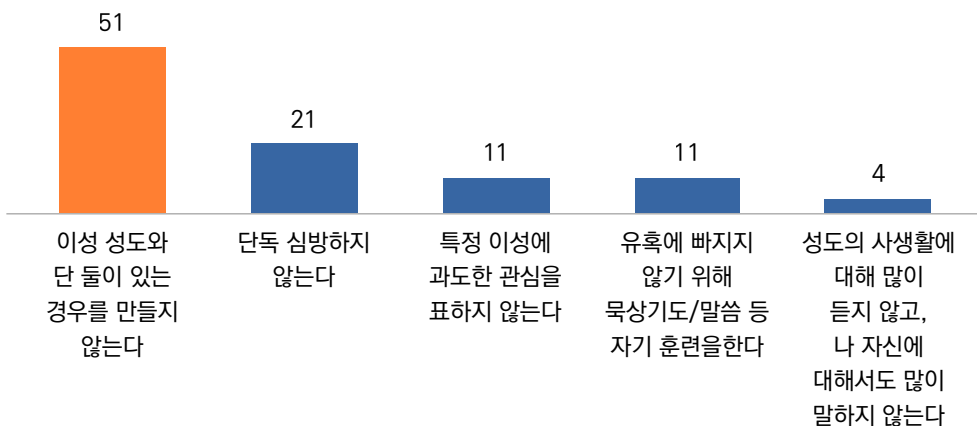


### ◎ 목회자가 이성 성도와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방법, '단둘이 있는 경우 만들지 않는다' 51%

- ▶ 목회자들은 이성 성도와 성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51%)나 '단독 심방을 하지 않는다'(21%) 등을 주로 꼽았다.

[그림]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 (목회자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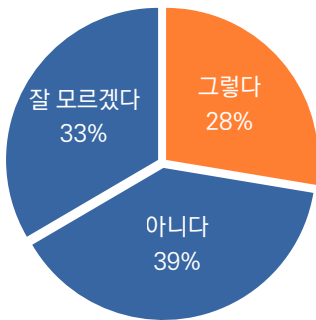


# 04

## 교단(총회)의 성폭력 예방 교육 미비

- ▶ 목회자들 가운데 소속 교단(총회)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 밖에 되지 않았다.
- ▶ 그런데 주요 교단의 경우 총회에 성폭력대책 기구를 설치하거나 교회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프로그램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총회가 형식적으로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했을 뿐 이를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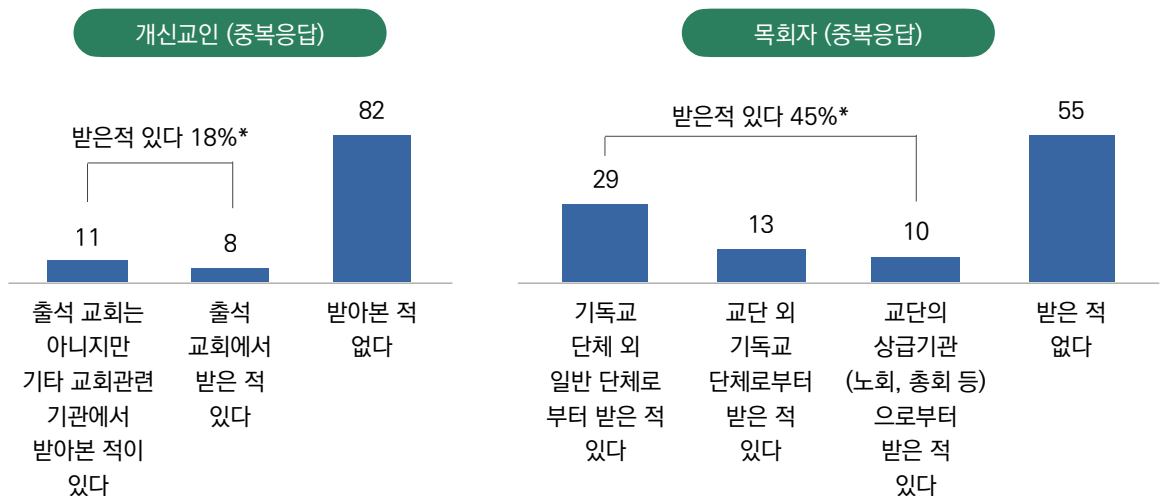
[그림] 교단(총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유무(목회자 대상)



### ◎ 목회자, “교단으로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적 있다” 10%

- ▶ 출석 교회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은 8%이며, 노회/총회 등 교단으로부터 교육 받은 목회자는 10%로 두 그룹 모두 교회 및 교단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 ▶ 소속교회나 교단 외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은 개신교인은 18%로 낮았으나, 목회자는 45%로 성도들 보다는 높았으나,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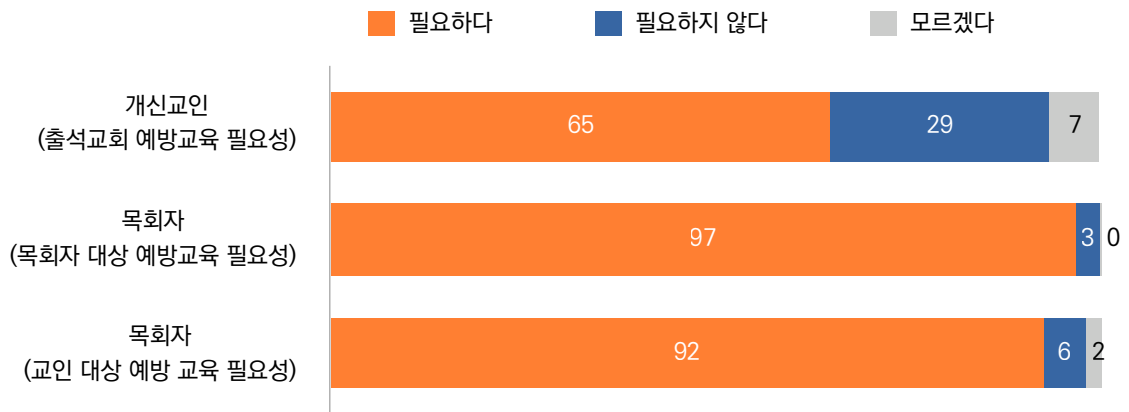
\*개별응답의 합이 합계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중복응답으로 인한 것임.

## ◎ 목회자,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하다” 90% 이상!

- ▶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개신교인과 목회자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 ▶ 특히 목회자들은 목회자 대상 교육 뿐만 아니라 교인 대상 교육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길 정도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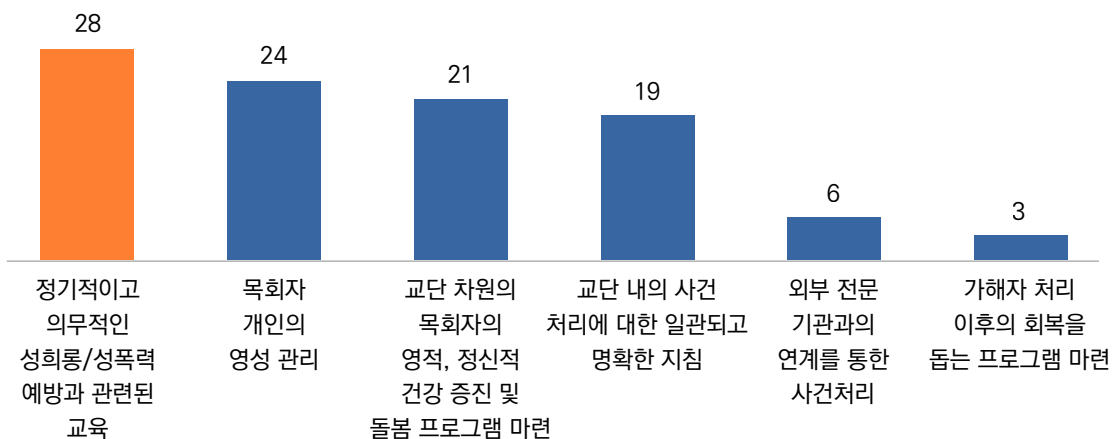


## ◎ 교회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건, “목회자 영성관리”!

- ▶ 교회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순위로 응답한 것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28%)이었다.
- ▶ 그런데 2위와 3위가 ‘목회자 개인의 영성 관리’(24%),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 프로그램 마련’(21%)인 것을 보면 목회자의 영성 관리가 성범죄 예방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목회자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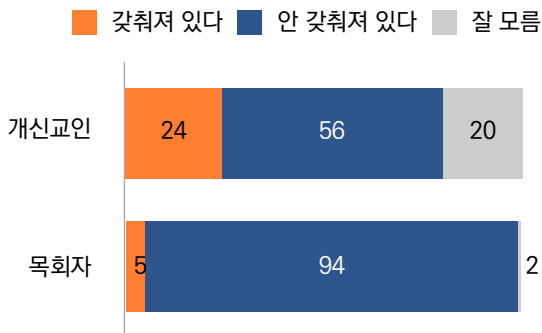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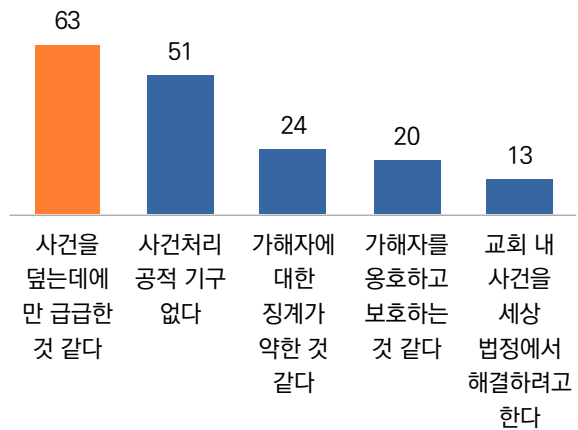
## 목회자와 성도 모두, 한국교회 성범죄 대응 시스템 부재 인식 높아!

- ▶ 한국 교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인식이 높다. 특히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 시스템 부재에 동의하고 있다.
- ▶ 구체적으로는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63%)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 같다'(24%) 등 처리 과정의 무원칙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는 것 같다'(51%)와 같이 제도/기구의 부재도 지적하고 있다.

[그림]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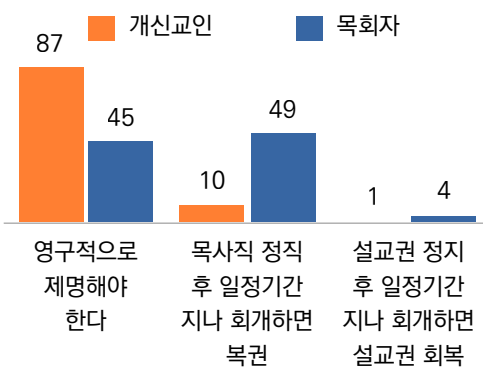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재 이유 (목회자 대상, 1+2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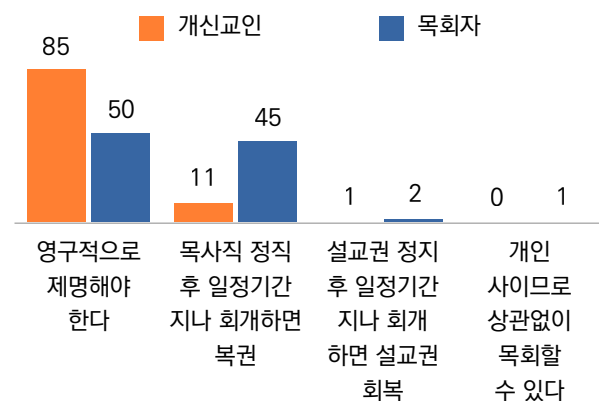
### ◎ 개신교인 87%, “교인대상 성범죄 일으킨 목사는 제명해야!”

- ▶ 목회자가 교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목회자와 개신교인의 응답 결과가 차이가 난다.
- ▶ 개신교인들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경우 모두 압도적으로 높는데, 목회자들은 영구적 제명과 '회개 후 복권' 응답이 비슷해서 목회자들이 교인보다 좀 더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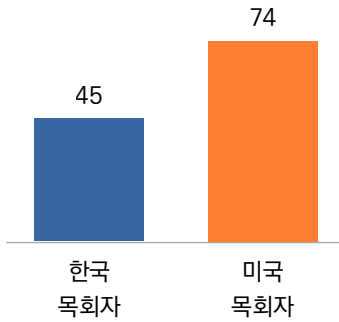
[그림]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단위 : %)



## ◎ 성범죄 목사에 대해 한국 목회자가 미국 목회자보다 더 관용적!

- 앞에서의 성범죄 목사의 경우, 한국 목회자는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45%인데 반해, 미국 목회자는 74%로 한국 목회자보다 훨씬 높아, 한국 목회자가 동료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림]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시 ‘영구 제명해야 한다’ 의견  
(한국 목회자 vs 미국 목회자, %)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2021, 6. 22 'Most Pastors Say Sexually Abusive Ministers Should Step Down Permanently'  
<https://lifewayresearch.com/2021/06/22/most-pastors-say-sexually-abusive-ministers-should-step-down-permanently/>  
(미국 개신교 목사 1,007명, 온라인과 전화 조사, 2020.9.2.-10.1)

한국교회탐구센터는 2019년부터 3년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하여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교회 4대 이슈'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빠지지 않는 고정 이슈가 목회자 성폭력 문제이다. 교회 내의 성폭력,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가 갖는 남성 우위, 목회자 우위의 문화와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그루밍 성폭력'이다. 교회 내의 성폭력 가운데 '그루밍 성폭력'이 많다고 하는데 그루밍(Grooming)이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전에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성적 학대가 쉽게 이뤄지도록 만들고 학대가 시작된 뒤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sup>1)</sup> 남성 목회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 여성(특히 아동, 청소년)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교회 내의 성폭력이 남성 목회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개신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4쪽) 성폭력은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자제력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일정 부분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런 권위가 발현되도록 하는 교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폭력 발생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 내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남성 목회자가 여성 성도들과 수평적 관계를 맺도록 구조적 문화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직분, 나이 등과 무관하게 서로가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할 때 목회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또 성도는 쉽게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교단에는 성폭력 대책 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성폭력 예방 매뉴얼 등을 만들었지만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90%의 목회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단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7쪽) 성폭력 예

방을 위해서는 성폭력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단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학교 및 기업과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교회도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내의 성폭력 가해자가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있다는 사실이다. 발생 비율은 오히려 평신도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쪽) 목회자 성폭력은 교회와 언론에서 드러나지만 평신도에 의한 성폭력은 물밑에서 벌어지고 처리되어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은 목회자보다 성도들과의 교제와 친교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 언어 등에서 성희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성폭력 예방교육도 목회자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포함해서 온 교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엇갈린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성범죄 목사,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를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데에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목사들은 영구적 제명 의견과 비슷한 비율로 '목사직 정직 후 회개하면 복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목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성도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다.

교회 내의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의 생물학적, 인격적, 사회적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또한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제는 '남자는 그럴 수 있지', '실수였다', '뭘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변명으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자칫 한번의 실수가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회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1) 다음 백과, '그루밍'(<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d1531>)

1.[세계 기독교 박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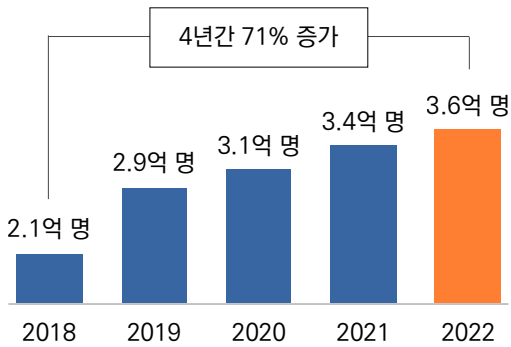
2.[2021년 청년 취업 인식 조사]



## 2022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 아프가니스탄 > 2위 북한

- ▶ 한국선교연구원이 보고한 2021년 세계 선교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5천만 명인데, 이 중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7명 중 1명꼴(약 3억 6천만 명)로 나타났다(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 보고서). 이는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71%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 ▶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20개국'을 살펴보면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아프가니스탄'이 뽑혔는데, 이는 지난해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의 장악 여파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 ▶ 20년간 기독교 박해국 1위(지난해 94점)였던 북한은 2위로 하향되었음에도, 올해 박해지수(96점)는 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 ▶ 중국의 경우 2021년 5월 새롭게 제정된 법안에 따라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자와 사회주의 시스템을 지지할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중국 국민들의 외국인 접촉 범위를 제한하고 올해 3월부터는 온라인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종교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림]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 (단위 : 명)



\*자료 출처 :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_박해보고', 2021.01.19. (조사기간 : 2020.10.01. ~ 2021. 09.30.)

[표]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20개국

박해 순위	국가명	총 박해 지수***	박해 상황
1	아프가니스탄	98	극심함
2	북한	96	
3	소말리아	91	
4	리비아	91	
5	예멘	88	
6	에리트레아	88	
7	나이지리아	87	
8	파키스탄	87	
9	이란	85	
10	인도	82	
11	사우디아라비아	81	
12	미얀마	79	매우 높음
13	수단	79	
14	이라크	78	
15	시리아	78	
16	몰디브	77	
17	중국	76	
18	카타르	74	
19	베트남	71	
20	이집트	71	

\*자료 출처 :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_박해지수순위표', 2021.01.19. (조사기간 : 2020.10.01. ~ 2021. 09.30.)

\*\* 한국선교연구원(2021년 세계 선교 통계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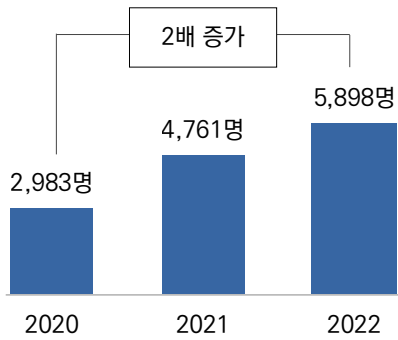
https://krim.org/%EC%84%B8%EA%B3%84%EC%84%A0%EA%B5%90%ED%86%B5%EA%B3%84-2021%EB%85%84/

\*\*\*박해지수 : 극심함 (81~100), 매우 높음 (61~80), 높음 (4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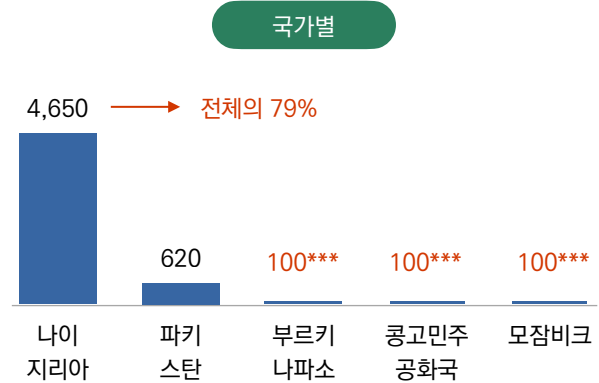
## ◎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세계 기독교인 수 5,898명(2년 사이 2배 늘어)

- ▶ 박해 유형별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2,983명에서 2022년 5,898명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79%에 해당하는 4,65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는 탈레반의 나이지리아에 세력 확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림]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연도별 전체)



[그림] 2022년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국가의 허가된 사형 포함, 상위 5위, 명)



\*자료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WWL2021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박해 보고, 조사기간: 2020.10.01.~2021.09.30.)  
 \*\*100: 산출 불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수치는 더 높음.

## ◎ 미얀마, 기독교 박해 심각!

- ▶ 신앙을 이유로 폭력이나 압박의 공격으로 집을 떠나 국내 지역에 숨어 지내는 기독교 이재민의 수는 세계적으로 218,709명인데, 미얀마가 총 200,000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 ▶ 또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모국에서 추방된 기독교 난민 수는 25,038명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얀마가 1위를 차지했고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0,000명이 난민이 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림] 폭력/공격으로 집을 떠나 국내에 숨어 지내는 기독교 이재민



[그림] 신앙을 이유로 외국으로 추방된 기독교 난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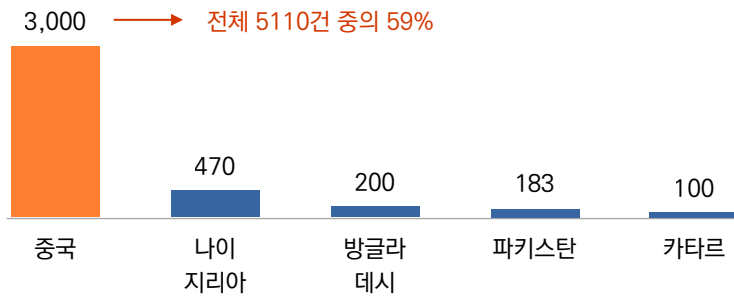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WWL2021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박해 보고, 조사기간: 2020.10.01.~2021.09.30.)

## ◎ 신앙을 이유로 공격/파괴/폐쇄/몰수를 당한 교회/기독교 건물 수, 중국이 59%로 1위!

- ▶ 신앙을 이유로 공격, 파괴, 폐쇄, 몰수 등 피해를 받은 교회나 기독교 건물 수를 살펴보면, 전체 5,110건 중 중국이 3,000건으로 59%를 차지해, 2위 나이지리아 9%와 큰 격차를 두고 단연 1위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신앙을 이유로 공격/파괴/폐쇄/몰수를 당한 교회/기독교 건물 수 (2022년 현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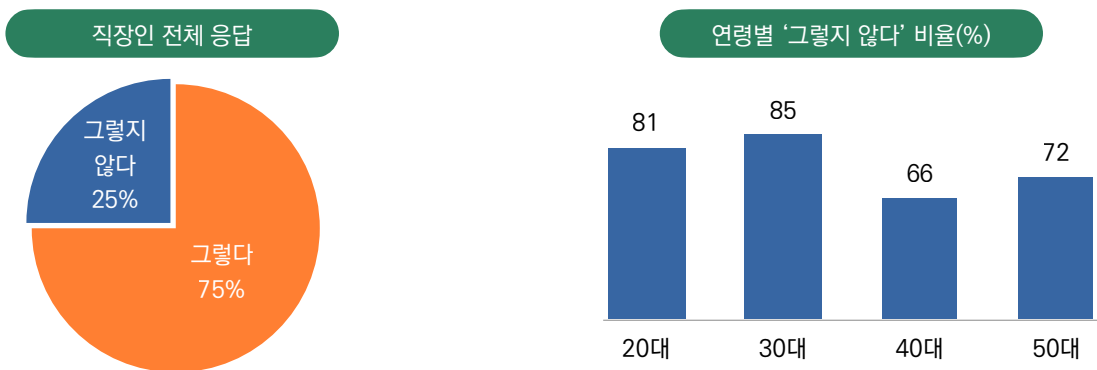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WWL2021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박해 보고, 조사기간: 2020.10.01.~2021.09.30.)



## 취업관련 직장인의 생각, '기성세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주고 있지 않다' 75%

- ▶ 직장인들은 청년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와 관련 최근 조사에서,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5%로 '그렇다'는 응답 25%의 3배였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인 현실에서 청년 취업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 ▶ 청년 취업 당사자인 20대(81%)와 30대(85%)층의 경우 80% 넘게 대부분이 청년 취업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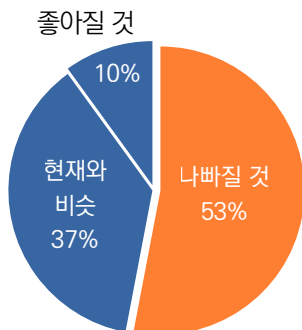
\*자료 출처: 직장갑질119, 공공상생연대기금, '직장인 인식 조사(12월)\_2차 결과', 2021.01.01.(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2021.12.03.~12.10, 엠브레인퍼블릭, 온라인조사)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별로+전혀'를 합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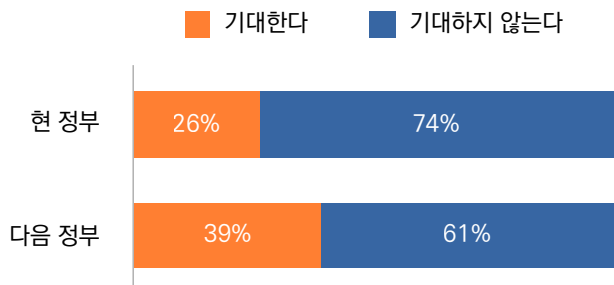
## ◎ 직장인의 절반 이상, '향후 청년 일자리 전망' 비관적!

- ▶ '향후 청년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3%)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지나지 않아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훨씬 우세했다.
- ▶ 직장인들은 현 정부 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 거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



[그림] 청년 정책 진행에 대한 현 정부 vs 다음 정부에 거는 기대



\*자료 출처: 직장갑질119, 공공상생연대기금, '직장인 인식 조사(12월)\_2차 결과', 2021.01.01.(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2021.12.03.~12.10, 엠브레인퍼블릭, 온라인조사)

\*\*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별로+전혀'를 합한 비율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 2월 1주 휴간](#)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 2월 1주 휴간](#)

[이대녀는 40대만큼 진보인데...이대남은 대한민국 최강 보수 \[본지·정당학회 분석\]](#)

중앙일보\_2022.01.25.

[\[여론조사 추이분석\] 이-윤 모두 '우호 세력' 온전히 흡수 못 했다](#)

SBS\_2022.02.07.

◎ 사회 일반

[2년 '집콕' 서울 초등생, 코로나 비만 확 늘었다](#)

중앙일보\_2022.01.26.

[치솟는 집값에 '탈서울' 가속화](#)

국민일보\_2022.01.26.

['흑형'은 차별 55%, 'O린이'는 차별 아냐 78%...어린이는 미숙하다는 편견](#)

한국일보\_2022.01.29.

[작년 '2030 영끌족' 아파트 매입 비중 최대치 기록...서울 40% 돌파](#)

연합뉴스\_2022.02.06.

[다문화학생 16만명, 9년새 3배...초등 4.2%·베트남계 32%로 최다](#)

연합뉴스\_2022.02.01.

[외국인 근로자 54만여명 연말정산했더니 평균 연봉 2천926만원](#)

연합뉴스\_2022.02.06.

[배달료 육하면서도 엄청 시킨다...배달음식 거래액 4년새 9.4배 '경총'](#)

매일경제\_2022.02.07.

◎ 청년

[MZ세대 “먼 미래보다 행복한 하루”... ‘갓생살기’ 트렌드에 꽃히다](#)

동아일보\_2022.02.05.

[없는 공간도 만들어내는 Z세대](#)

주간동아\_2022.01.29.

[커피쿠폰 대신 영양제 선물... MZ세대 “젊을때부터 건강 챙기죠”](#)

동아일보\_2022.02.07.

[청년들 2년간 집에 갇히더니...우울증만 늘었다](#)

매일경제\_2022.01.2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사람을 위해 일하는 로봇...1조弗 시장으로 성장 시작했다](#)

매일경제\_2022.01.26.

[2년간 상위 1% 3700만원 쓸때, 하위 20% 3만원 썼다](#)

중앙일보\_2022.01.25.

[한국 경제, 코로나 이전보다 3.1% 성장...G7 중 6개국은 마이너스](#)

연합뉴스\_2022.01.31.

◎ 국제

[아세안 2030 “한국이 미국·중국·일본보다 더 신뢰간다”](#)

중앙일보\_2022.01.27.

[한국 국민 72% "AI 잘 이해"...주요 28개국 중 7위](#)

한국경제\_2022.02.06.

[“참을만큼 참았다... 더 멀리, 고급스럽게” 벌써 짐싸는 여행객들](#)

조선일보\_2022.02.06.

[한국 장애·상병급여 지출 GDP 대비 0.3%...OECD 34개국 중 33위](#)

연합뉴스\_2022.02.01.

◎ 건강

[선진국서 두 번째로 날씬한 한국...성인 비만을 미국의 1/7](#)

연합뉴스\_2022.01.29.

[“요즘 울적하세요?” 대화로 노인 건강 관리하는 로봇 나온다](#)

매일경제\_2022.02.07.

◎ 기독교 / 종교

[‘명절 우울’ 심한 어르신 돌봄사역 급하다](#)

국민일보\_2022.02.04.

[“2025년 무신론자 300만명 ↓ 남반구 기독교인 5300만명 ↑”](#)

국민일보\_2022.02.07.

◎ 이슈큐레이션

[20대 대선 유권자들의 이념적 구성과 대선 후보 선호도: 세대 균열, 계급 배반, 그리고 양극화](#)

동아시아연구원\_2022.01.28.

## 천주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유

최영균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천주교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개신교 목회자들과 그 비결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글을 시작하면서, 먼저 나의 집안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천주교 신부이지만,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래서 집안 사촌들 중 목사가 셋이나 있다. 가끔 만나면 서로의 생활에 대해 나누게 되는데, 모두들 신부인 나를 부러워한다. 부러움의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가족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의 목사들은 가정을 꾸리면서 경제적 문제와 자녀 교육 등 가장으로서 부담을 짊어진다. 둘째, 신부들은 교회에서 복지와 노후를 책임지는데, 목사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오(얼굴?)의 문제다. 미디어를 통해 목사들의 비행과 도덕적 탈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창피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목회자인 사촌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면쩍어진 나는 “혼자 살아도 힘든거 있지. 혼자 사나 가족이 있으나 장단점이 있는데, 천주교는 무서운 조직이잖아! 훌륭한 신부들이 많고,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다른거야. 사람에 따른 개인적인 편차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마찬가지로 아닐까”라며 어쩔쩔 넘어가곤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보고서에 게재된 2020년 6월 초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보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 ‘온화한’, ‘절제적인’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보이는 반면,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같은’ 등의 단어들이나 나타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집단감염 사례들 중 일부가 개신교로 지목되면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각인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 이전에도 이미, 개신교라는 종단과 성직자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었다.

또 다른 조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인 비종교인 모두가 생각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 ‘높은 사회봉사율’ 순으로 나타났다. 아쉽게도 이러한 이미지의 가치와 가장 멀다고 느껴지는 그룹은 개신교 목사들이다. 어쩌다 초대교회의 복음정신으로 돌아가자던 개혁자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개신교의 종교 개혁 당시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고, 부패가 많다고 지적되던 천주교는 어쩌다 또 나름 관참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현대 사회에서 천주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좋아진 이유는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 때문이다. 천주교에서는 사제 개인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내세우지 않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한 몸처럼 행하기 위해 교회 전체가 유기적 네트워크를 맺고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 개인의 자유에 준거한 혁신과 열정은 개신교에 비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잘못된 곳으로 빠져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확률은 적어지는 것이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성직자의 수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천주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도와 조직의 규범이 갖는 지배력의 강도가 세다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남과 내가 나를 누구인가라고 보는 인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규범을 지배하게 된다. 가톨릭 신부들은 대체로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관리와 교육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면 세상과 단절되어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20대를 온전히 보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시 생각하게 되며, 독신 생활의 의무화는 이를 더욱 강화시켜 교회에 대한 성직자로서의 귀속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공동체에 대한 순명과 충성에 연결된다. 그래서 가톨릭 성직자들은 교회의 제도와 규범이 자신 안에 내면화되고 강한 강도로 규율화 되어 있다. 가톨릭의 공동체는 사제 개인이 사역하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교황청을 정점으로 한 교구 전체와 다른 기구들을 포함하고 있어 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준수의 의지는 매우 강하고 보편적이다.

반면 르네상스 시대에 태동한 개신교회는 그 태생부터 철저히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 개신교 신학자 하르낙의 말대로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 개인의 깊은 내면으로 찾아오시어, 그를 만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개인이 응답하고, 그 소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이다. 물론 개신교회도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를 그 범위로 한다. 교단의 규범과 지배력이 존재하지만, 천주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다시 말해 천주교는 교회의 제도와 규범성이 사제 개인의 인간적 성숙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본다면, 개신교는 인간 개인의 자율성에 의한 지성적, 도덕적 실천 능력에 대한 낙관적 믿음을 더 강조한다. 제도(시스템)와 개인의 자율성 둘 다 신앙적 성숙에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개신교는 후자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잡한 오늘날의 시대에 목회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고, 개인은 약한 존재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제없는 종교인으로 잘 산다는 것은 철저히 목회자 개인의 몫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천주교의 사제들은 좀 더 편하다고 할수도 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전통적 규범의 매뉴얼에 맞추면 개인적인 관심분야에서 열혈 활동을 해도 그 방향성은 크게 틀리지 않게 된다. 혹여나 일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체의 결정으로 천주교 신부는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 이런 공동체 중심의 행동과 규율이 성직자 개인의 일탈을 줄이고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이라 하겠다.

개신교회가 한국사회에서 공적 종교로서 사람들의 인격과 영성의 성숙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면, 목회자 자신의 생각, 성공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를 포괄하는 전체 기독교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랑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복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남기환, 남상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병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별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신규 후원 |

꿈의교회(김학중 목사), 빛과소금교회(김한원 목사),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 문호교회(전창근 목사), 서연우, 최태영, 나광균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mailto: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 연구소 소식 |

〈2021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Vol.3〉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 이벤트로 100분께 추첨을 통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을 눌러 받으실 성함, 전화 번호, 우편 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신청